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배운다

금연글짓기 대상 탄 박대훈군과
전남 완도군 노화초등학교 김명수 교장



▲ 사진 왼쪽부터 김송자 담임선생님, 할아버지, 어머니 주명례씨, 아버지 박상선씨

전 남의 해남 송지면 딸골 부두(갈두리)에서 배를 탔다. 상큼한 비드바람을 벗삼아 완도군 노화면 산양리 선착장까지 가는 동안 비 내리는 섬과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에 내내 취해 있었다.

섬 깊숙한 산등성이 너머 숲 사이로 아담한 학교건물 하나가 자리잡고 있었다. 아름다운 시냇물 하나쯤 쓰지 않고는 못 견딜 것 같은 고즈넉함이 푸근하게 다가왔다. 빗소리 사이로 간간이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아무도 없다고 착각할 정도로 조용한 학교의 복도를 따라 5학년 교실을 찾아갔다.

유치원처럼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넓은 교실에서는 10명 남짓한 학생들이 수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대훈이를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5학년 반에는 대훈이 말고도 이번 금연글짓기에서 상을 받은 학생이 셋이나 더 있다. 전교생이 78명인 학교에서 5학년 10명 중 모두 4명이 상을 탔다면 뭔가 특별한 교육 지도 방침이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이다.

1998년에 이 학교로 부임한 김명수 교장선생님의 교육방침은 바른 독서습관 형성과 기초

학력 정착, 바른 인성교육이다.

『어릴 때부터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야 풍부한 정서와 바른 인간성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 속에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큰 인물이 되려면 무엇보다 책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도시 문명이나 세상사와는 떨어진 섬 마을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책을 통해 정서를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요.』

그래서 김명수 교장 선생님은 매일 아침 등교와 동시에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전교생이 책을 읽도록 하고 있다. 학년별로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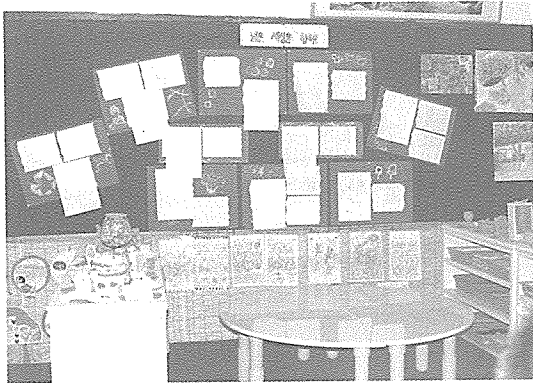
독 도서와 좋은 책을 선정해서 알려주고 책을 구하는 것도 학교의 몫이다. 그리고 매월 독후감 쓰기와 발표회, 독서습관 우수 아동 표창 등의 행사도 갖는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글짓기에 각별한 관심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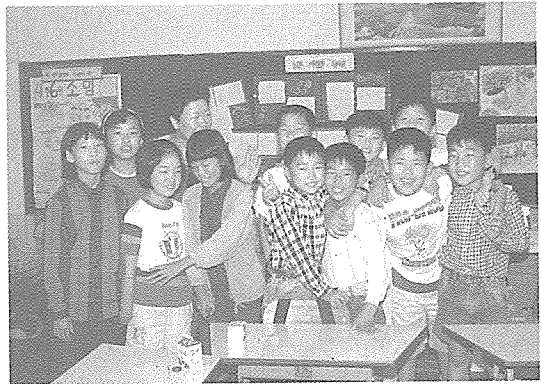


▲ 4명의 수상자에게 집중글짓기 지도 풍경

이번에 만날 수 있었다.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힘이 되지 못해 죄송하다고, 글짓기에서 대상을 받은 것이 조금이나마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는 꾸밈없는 편지글, 앞으로 더 의젓해지겠다고, 계장을 담아 팔아서 유령여행을 꼭 할



▲ 교실 뒤편 글짓기한 내용 부착



▲ 반 학생들의 즐거운 한때

갖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송하문 교감선생님이 방과 후에나 방학 기간 중에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기도 하고,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함께 가족신문 만들기, 부모와 자녀간 또는 선생님께 편지 쓰기, 현장 체험학습 소감문 쓰기 등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습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학년 대훈이네 반 담임인 김송자 선생님과 글짓기 지도에는 일가견이 있는 분이다. 전에 근무했던 목포 연동초등학교에서도 김 선생의 지도를 받은 학생들이 여러 글짓기 대회에서 입상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대훈이는 4학년까지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 정도로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학교 방침

에 따라 꾸준한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발전을 보이다가 이번에 대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수상 이후 부쩍 소질이 늘고 있습니다. 대훈이는 특히 시어를 잘 구사해서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훈이는 전복 양식을 하는 아버지 박상선씨(35세), 어머니 주명례씨(30세), 할아버지, 그리고 누나 둘과 함께 살고 있다. 장차 훌륭한 경찰관이 되어 마을을 지키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가진 대훈이는 어린아이답지 않게 생각이 깊고 사물을 보는 감각이 뛰어난 학생이다.

이번 금연글짓기 작품 말고도 대훈이의 가족 사랑이 물씬 풍기는 생활 글들, 노화초등학교 학생들의 재미있고 소박한 글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선생님의 가르침과 사랑에 항상 감사하다는 소박함이 담긴 선생님께 드리는 글 등...

도시 아이들처럼 약지도 않고 계산적이지도 않고 재빠르지도 않지만, 아이들은 넓은 마음을 가진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햇빛에 검게 그을린 얼굴 가득히 흐르는 편안함 그 자체가 아름다운 글이 되어 나오는 것은 아닌지.

소중한 만남이었다. 오랜만에 접하는, 때묻지 않고 작위적이지 않은 자연과의 접촉이었다. 사랑으로 참교육을 실천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배우며 성장하는 아이들. 그 아름다움과 사랑이 오래도록, 아니 영원히 간직될 수 있다면... [72]